

## 2014년 청소년뮤지컬 제작 시범공연 지원사업 심사평

- 일시 : 2014. 7. 22(화) 10:30~12:00
- 장소 : 대학로 아르코 미술관 세미나실
- 심의위원 : 서재형, 이지혜, 장소정, 조광화, 최현묵 (가나다 순)

2014년 청소년뮤지컬 제작 지원사업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신규 창작뮤지컬을 발굴하여 공연제작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이번 시범공연 지원에 선정된 작품은 오는 9월 예정된 실연심사(시범공연)를 거쳐 최종 우수공연 제작지원 여부가 결정된다.

이번 공모에는 총 29편의 작품이 접수 되었으며, 서면 심사를 통해 5편을 시범공연 지원 작품으로 결정하였다. 대본, 악보, 음원 자료를 사전에 면밀히 검토 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작품의 예술성(40%), 공연단체의 역량(30%), 작품 계획의 충실성과 타당성(30%)을 기준으로 평가하였다.

29건의 지원신청 작품 중 다수가 학교폭력, 성적비관, 가족불화 등 사회적으로 많이 논의되는 청소년 문제를 소재로 하여 상투적이고 진부한 극 전개를 보여 아쉬웠다. 반면 청소년의 관점에서 흥미를 유발할 수 있는 소재를 활용하여 기발한 상상력과 새로운 시도로 창작 열의를 보여준 작품이 인상적이었다.

선정된 작품을 살펴보면, <달빛요정과 소녀>는 담백한 스토리에 호소력 있는 노래가 조화를 이룰 것으로 기대되는 작품이다. <마당을 나온 암탉>은 우화적 이야기와 한국음악의 만남이 흥미로워 완성도 있는 작품이 나오리라 기대한다. 청소년들의 모습을 가감 없이 생동감 있게 표현한 <바람직한 청소년>은 대본이 참신했던 반면, 음악과 가사에 대해 조금 더 고민하여 완성도를 높이길 바란다. 진성성이 느껴지는 음악이 긍정적인 평가를 얻은 <열아홉 선물>과 랩과 비트박스로 음악을 구성한 <북치기 박치기>는 개별 곡이 우수했던 반면 전체 음악과 드라마와의 결합이 인상적이지 못한 점이 다소 아쉬웠다. 하지만 두 작품 모두 발전 가능성이 기대되는 작품이다.

선정된 작품 모두 지금 수준에 만족하지 말고 우리시대의 청소년들에게 위로와 희망을 줄 수 있는 작품을 제작할 수 있도록 시범공연 준비에 매진하기를 기대한다.

청소년뮤지컬 제작지원 사업 시범공연 지원 심의위원 일동